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Risk assesment for preventing chemical accident)

장 현*

SK이노베이션 SHE본부

(janghyun@sk.com*)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러한 위험요소로 인하여 사업장 또는 개인의 어떤 측면에 영향을 주는지 예상하여 결과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게 되는지 미리 분석해 보고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위험성평가는 미국의 손해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시초가 되었다. 그리고 1976년 이탈리아 세베소에서 유독성물질 방출사고가 발생하여 주변 11개 마을에 영향을 주고 수만 마리의 가축이 도살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이후로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위험성평가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30여년간 발전되어왔다. 과거 안전관리는 사고의 축적이라는 경험에 의해 발전해왔고 그 경험에 따라 사고발생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해 왔으나 위험성평가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경험하지 않은 사고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그 취지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여 단순히 신규공정 가동 승인을 위한 보고문서 작성의 하나로 인식되어 수행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본 발표에서는 제대로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한 위험성평가 체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